

Siddhartha에 있어서의 새로운 人間像

—Das neue Menschenbild zum Werke Siddhartha—

李 榮 久

Lee Young-koo

1. 緒 言	4	2. 獨逸文學의 特徵으로서의 内面性	4
3. H. Hess 文學의 内面性	4	4. 主題에서 보는 Siddhartha의 生의 意義	4
		5. 結言—Hesse의 새로운 人間像	4
		參考文獻	4

Zusammenfassung

Die Innerlichkeit ist die Wesentlichkeit in den Dichtungen H.Hesse. Daher viele wollten und wollen seine meisten Werke mit diese Innerkeit betrachten.

Man will auch gern den Orientalismus in dem Roman Siddhartha begreifen, weil er das indische oder buddhistische in demselben Hintergrund hat.

Aber dieser Siddhartha ist mit dem orientalischen und dem buddistischen, wie mit der Innerlichkeit, nicht zu ergreifen.

Dieses Papier ist die Treibung, daß ich den Siddhartha mit seinen thematischen Wesen richtig auffasse. Das heißt, ich fasse, daß das Thema des Siddhartha in der heutige Welt das neue Menschenbild zeigt, auf. Ich heiße das neue Menschenbild das Ich das heißt (Atman). Der neue Mensch wird durch die tiefe Meditation und die Askese gebren werden.

1. 緒 言

Hermann Hesse는 今世紀에 있어 獨逸文學을 代表하는 詩人이었다. 그는 항상 詩人으로서 世界와 人類에 대하여 자신의 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많은 作品을 썼다. 現代의 世界가 카오스의 소용돌이 속에서 指向의 길을 잃어 버리고 戰爭과 같은 人類의 悲劇을 演出하는 人間의 非人間性이 그를 괴롭히는 問題였다. 詩人인 자신에게 使命이 있다면 物質文明의 現世界를 洞察하고 이 不德한 文明에 의하여 歪曲되어진 人間性이 世界戰爭과 같이 人間을 마구 殺戮하는 人間의 非理를 自身の 内面 깊숙히 받아들여서 이를 省察하고 思惟하여 眞正한 人間性을 覺醒한, 即 人類의 良心으로 昇華된 人間像을 提示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世界에 대하여 正面으

로 批判하고 對決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과 世界를 남김없이 자신의 內面에 끌어들이어서 이를 思索과 省察로서 克服하는 길을 탐색하려고 하였다. Hesse의 文學을 內面性的인 文學(die Dichtung der Innerlichkeit)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것은 이를 이룸이다.

Hesse는 일찌기 詩人이 되려는 意志 때문에 正常的인 教育과 安逸한 家庭生活을 포기하여야 했다. <成人이 되는 길은 여러가지 있지만 詩人이 되는 길은 自己自身の 길 밖에 없다>¹⁾고 술회하는 그는 少年時節 부터 줄곧 고난과 試練을 바탕으로한 體驗 속에서 詩人으로 成長해 갔다. 그는 後日 自叙傳에서 <나의 小年時節은 不實과 醜聞, 逃走와 追放으로 끝나 버렸다>²⁾고 말하고 있다. 그의 體驗은 이렇게 少時節 부터 비롯된 信仰的인 것으로 그의 文學의 根幹이 되고 있으므로 Hesse文學의 理解는 內面과 같이 體驗을 受容하여야 할 것이다.

1922년에 발표된 小說<Siddhartha>는 Hesse文學을 代表하는 한 作品일 뿐아니라 여러가지 特色을 지닌 作品으로서 注目을 끄는 小說이다. 그의 出世作品인 Peter Camenzind(1901)에서 晩年의 大作인 Glasperlenspiel(1943)에 이르는 一連의 作品系譜 가운데 中期에 해당하는 作品으로서 Grenzmann 教授는 Siddhartha를 <藝術적으로 價値가 많은 小說>³⁾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 小說은 Hesse의 文學을 포준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印度의 詩—Indische Gedicht>라고 副題를 붙인 Siddhartha는 1911年 그가 印度를 여행하여 얻은 決算으로서 우리가 흔히 Hesse文學을 가르켜 東洋의 知慧, 또는 東洋精神의 文學⁴⁾으로 보는 立場에 비추어 이 小說은 그 象徴的인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小說은 1919年代의 네 短篇들과 합쳐서 <內面에의 길—Weg nach Innen>⁵⁾이라고 이름 붙였다. Hesse文學의 特徵을 內面性이라고 볼 때 이 小說에 붙인 象徴的인 題目이 小說 Siddhartha와의 關係를 스스로 설명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作品은 Hesse의 作品 가운데 一考의 價値를 인정하는 作品인 것이다.

그런데 小說 <Siddhartha>의 理解와 評價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傾向으로 集約되어 Siddhartha의 主題와 本質이 歪曲되어 있음을 發見한다. 그 하나의 傾向은 Hesse文學의 一般的인 脈絡이라 할 수 있는 內面性과 體驗을 根幹으로 하여 獨逸의 傳統的인 小說의 基調인 成長小說(Entwicklungsroman)의 측면에서 풀이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勿論 그럴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다. 하지만 小說Siddhartha에 있어서 Demian의 경우와 같은 內面性으로 풀이 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Siddhartha의 體驗이 Camenzind나 Harry와 같은 成分으로 이 小說에 作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小說에 흐르는 內面性과 體驗의 問題를 Hesse文學의 一般的인 特徵에서 포착하여서는 Siddhartha의 主題意識이 埋沒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傾向은 이 小說의 素材에서 연유 한다. 主人公인 Siddhartha는 바로 釋迦世尊의 出家전의 이름(이 小說에서 석가모니는 Godama Buddha로 등장하고 있다)이며 또한 Siddhartha의 苦行과 求道の 行각은 佛陀의 그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이것은 Hesse의 東洋的인 性向과 맞아 떨어져 이 小說을 一見 佛敎的인 것으로 보고 生의 意義를 파악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小說 Siddhartha는 求道的인 自我發見의 內面性, 苦行과 自我發見에 이르는 生이 體驗, 그리고 그 素材의 特殊性으로 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어느것에 力點이 주어진다 해도 크게 方向의 離脫이라고 볼 수 없는 所以가 이상에서 말한 Hesse文學의 本質性이 다른 作品들에서와 같이 Siddhartha에서도 복합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1) H. Hesse: Ansprache in der ersten Stunde des Jahres 1946, Gesammelte Dichtungen VII. S. 427, Suhrkamp Verlag. 1958.

2) H. Hesse: Traumfährte, Kurzgefaßter Lebenslauf, S. 470, ibid. IV.

3) W. Grenzmann: Deutsche Dichtung der Gegenwart, S. 174, Athenäum Verlag, 1964.

4) 高橋孝二著: ヘルマンヘッセ, 現代獨逸文學論 S. 172, 河出書房

5) 1924년 Klingsor letzte Nacht, der Kurgast, Nach Indien 그리고 Siddhartha를 合本으로 Weg nach Innen

本論考는 小説 Siddhartha에 있어 Hesse의 主題意識을 부각하려는 데 目的을 둔다. Hesse는 이 小説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佛敎에서 보는 悟道精神을 우리들에게 示顯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며 또한 Buddha의 思想을 啓導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反對이다. Hesse는 이에 대하여 Mein Glaube에서 <나의 Siddhartha는 敎義를 거부하고 一體와의 體驗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리스도敎의 발전, 아니 新敎적인 성격으로 느껴 진다>⁶⁾고 함으로써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고 Hesse는 新敎적인 立場에서 佛敎의 敎義나 思想을 本格的으로 批判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Hesse는 古代印度의 Siddhartha를 무엇 때문에 導人 하였던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그의 主題意識을 究明해 보아야 할 여지가 생긴다. Hesse는 확실히 現世界가 완전히 瓦解되기 전에 그리고 人間이 여지없이 墮落하기 전에 救濟 되기 위하여 새로운 人間性, 人類의 良心으로 昇華된 人間像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印度의 Siddhartha가 필요했던 것이다.

Siddhartha에 있어서 Hesse의 主題性을 追求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역시 Hesse의 本質性과 關係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內面性을 度外視 하여서는 Hesse의 文學을 理解하기가 不可한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內面性을 말할 때 자칫 獨逸文學의 特徵으로서의 內面性⁷⁾과 혼동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獨逸文學을 世界의 여타 文學과 비교할 때, 形而上學적인 哲學性을 지적하고 이것을 총괄하며 內面的인 文學이라 指稱한다. 물론 Hesse의 文學이 獨逸文學임에야 이 屬性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Hesse文學의 本質로서의 內面性은 이와 또 다른 內容이 있어야 함으로 이 檢討가 先行 되어야 할 課題가 되겠다.

Hesse의 內面性은 그의 文學의 本質로서 設定 되지만 이 內面性이 具象體가 아닌 이상 모든 作品에 一律적인 形相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를테면 Demian에 深化되어 있는 內面性⁸⁾으로서 Siddhartha를 완전히 受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Hesse의 內面性과 Siddhartha의 內面性을 對照하고 Hesse가 이 作品에서 意識하는 바의 主題를 밝혀 그의 生의 意味와 새로운 人間像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小説의 意圖이다.

2. 獨逸文學의 特徵으로서의 內面性

獨逸文學에 있어서 <內面性—Innerlichkeit>이란 이미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는 概念이다. 그러므로 이 內面性은 獨逸文學을 다른 世界文學속에서 特徵지워 주는 屬性으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內面性은 넓은 意味에서 독일문학의 傳統을 잇는 作家들 누구에게 적용되는 要素가 되는 것이다. Goethe의 Wilhelm Meister나 Novalis의 Heinrich Ofterdingen, Höderlin의 Hyperion 뿐 아니라 現代의 T. Mann에 있어서도 이 內面性은 그의 作品을 푸는 要因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周知해 두어야 할 것은 이 內面性이 Goethe나 Mann의 作品에 이어지는 獨逸적인 脈絡일 뿐 구체성을 띤 形相이 아니다. 그러므로 內面性은 作家의 個性에 따라서 그리고 作品의 性向에 따라 그 樣相은 여러가지 나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獨逸적인 內面性이 獨逸적인 傳統적으로 表出되는 것은 獨逸의 敎養小説(Bildungsroman) 또는 成長小説(Entwicklungsroman)이 內面性의 意味를 지니고 즐기치게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成長小説에 대해서는 그 形式과 內容이 또한 독특한 小説의 한 장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生이 人間으로 形成되는 過程을 그린 小説인 데 人間의 成熟을 外部的인, 形相적인 것 보다 內面的인 成長을 중점적으로 그린 小説을 말한

6) H. Hesse: Mein Glaube, Gesammelte Dichtungen. VII. S. 376, Suhrkamp Verlag 1958.

7) 蔡斗植: 內面과 形式 S. 176, 許亨根 教授華甲紀念論叢 1977.

8) Hesse의 初期作品은 新浪漫主義 文學으로서 評價받고 있다. 그러나 一次大戰後에 발표한 Demian부터 內面性 文學으로 轉向하였다.

다⁹⁾ 그러므로 成長小説은 성장해 가는 生의 體驗과 그것을 止揚하고 昇華하는 內面性이 그 主要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獨逸의 內面性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나 이것 역시 간단하게 理解할 수 있는 具象의 概念은 아닌 것이다.

〈우선 內面性이란 어휘 자체가 단적으로 規定하기 어려운 말¹⁰⁾이고 했듯이 〈內面—das Innen〉이나 〈內面性〉, 또는 〈內面世界—die innere Welt〉란 概念이 모두 類似한 것이지만 하나같이 理解를 쉽게 해주지 못한다. 다만 共通的인 〈內-Innen〉란 개념이 우리의 內的인것, 即 精神, 心性, 또는 靈魂 등의 作用을 총괄하는 概念인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內面〉을 〈外部〉란 反對概念에서 파악할 수 있을것 같다. 人間의 精神的인 作用을 제외한 모든 事象을 人間의 外部的인 것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다. 內面에 대하여 外面 아닌 外部라 함은 精神性에 대한 肉體보다 훨씬 넓은 外延을 가르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內面을 語意的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內面的 屬性을 틀어내 놓고 定義하지 못하고 있다. 人間의 藝術的인 氣質과 市民的인 生活에 대한 갈등을 內面化한 作品으로 成功한 T. Mann 역시나 이 內面性에 대하여 선명한 解答을 내려주지 않는다. Mann의 말을 들어 보면

〈獨逸人에게 있어서 가장 有名한 特性, 그리고 번역하기 곤란한 이 Innerlichkeit라는 말로써 表現되고 있는 特性을 생각해 보자. 섬세(Zartheit), 心情의 깊은 의미(der Tiefsinn des Herzens), 自然에 대한 경건성(Naturfrömmigkeit), 思想과 良心의 가장 순수한 眞摯性(reinster Ernst des Gedankens und Gewissens), 요컨대 격조높은 抒情詩가 지닌 모든 本質的인 특징이 그 속에 섞여 있다. 그리고 世界가 이 獨逸의 內面性으로 얼마나 덕을 보았는지 오늘날 잊을 수가 없다. 即 獨逸의 形而上學, 獨逸의 音樂, 특히 독일의 리이드(Lied)의 奇蹟, 즉 國民的으로 완전히 단 하나 밖에 없고, 比較할 수도 없는것, 그것이 內面性的의 結實이다.¹¹⁾

우리는 Mann에게서 內面性이란 것은 獨逸의 特性으로 보아야 할것과 독일의 形而上學的인 藝術性으로 認識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이 內面性이 어찌하여 독일문학의 特性으로 또는 屬性이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대체로 두가지 說로 摘要할 수가 있다. 하나는 獨逸民族의 發生的인 것이고 다음은 近代에의 國家發展의 과정에 대한 報賞으로 보는 것이다.

獨逸民族은 German時代에 農業과 수렵을 하며 깊은 森林에 土着할 때부터 北方의 어둡고 침울한 風土에 젖어서 안으로 沈潛하는 氣質을 쌓아 갔다. 이러한 氣質은 점차로 內省的이고 思索的인 性格으로 發展하여 하나의 民族性으로 응결해 갔던 것이다. 이러한 獨逸的인 氣質은 藝術的으로 특히 音樂과 文學으로 昇華하여 갔다.¹²⁾ 탐미적이 아닌 思惟와 思索의 結晶으로 되어버린 獨逸文學은 世界의 表面에서 일어나는 形相보다 靈魂을 支柱로한 人間의 精神的인 問題에 關여하여 哲學的인 領域에 까지 擴大해 갔다. 그리하여 作家는 人間이 成長에 이르는 內面的인 體驗을 철저한 思索을 거친 純化된 形相이 되어 作品에 形象化되기 때문에 때로는 小説이 Fiktion이란 本質을 무색하게 하는 作品을 우리들은 獨逸文學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이러한 獨逸的인 傳統으로 발전해오고 있는것이 內面과 體驗을 基調로 하고 있는 獨逸의 教養小説(Bildungsroman)혹은 成長小説(Entwicklungsroman)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獨逸人의 內面性을 近代에 이르러 形成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根據를 獨逸人의 意識 構造에서 찾아 지적하는 이도 있다. 즉 近代의 初期에 獨逸은 國土의 未統一과 封建的인 諸侯들의 我執과 羣포로서 西歐의 列強들 속에서 가장 落後된 나라 였다. 近代的인 意識에 눈뜬 市民의 아들들은 外向的인 活動舞臺, 政治, 經濟, 社會的 運動이 봉쇄 됨으로써 이들의 情熱은 內部에 파고 들

9) 李榮久: Hyperion 研究,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16輯, S. 176, 1977.

10) 姜斗植: 內面性과 形式 許亨根教授 華甲紀念論叢 S. 175,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7.

11) T. Mann: Gesammelte Werke, XII, S. 570 Aufbau Verlag Berlin, 1956.

12) 相良守峯: ドイツ文學史, German 民族의 特質, 第一書房出版, 東京 1952.

어서 學問的으로는 獨逸의 觀念哲學과 같은 形而上學的인 分野에서 발전을 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¹³⁾ 한편 市民들의 理想 역시나 人間의 意義를 內面的인 生活에서 찾으려는 神秘主義(Mystik)의 風潮가 만연하여 <안으로 向하려는 氣質>即 內面的인 氣質이 獨逸人的 意識構造에 定着化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3. Hesse文學의 內面性

內面性이 獨逸文學의 特性이라 함은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은데 오늘날 독일문학에 있어 內面性的 文學이라고 하면 Hesse의 作品을 가르키고 또한 Hesse의 作品을 말할때면 으레 이 內面性을 떠올릴 정도로 일반 讀者들은 Hesse와 內面은 不可分의 聯關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前述한 독일문학의 特性으로서 內面性을 감안하고 Hesse의 作品이 가장 獨逸的인 作品이라는 立場에서 말하는게 아니고 Hesse의 作品을 評價할 때, 특히 몇 개의 作品에 있어서는 內面性的 認識(Hesse文學에 있어서의 內面性)없이는 理解하기 어려운 立場이 되기 때문에 Hesse의 作品을 批評할 때는 언제나 內面性이 中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Hesse는 作品속에서 스스로 이 內面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기도 하다. 詩, 小說, Essai 小品에 이르는 글에서도 그는 <內面> <內面に 이르는 길> <內面的 소리>등 內面이란 그것에 力點을 두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前章에서 獨逸的인 것으로서의 內面性을 검토하였거니와 Hesse文學의 內面性이라 함은 Hesse文學이 獨逸文學의 傳統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Hesse의 內面性은 Hesse文學의 屬性으로서 보아야 한다.

Hesse의 內面性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抽象的인 말로써 설명 하는것 보다 Hesse의 말과 몇가지의 事例를 가지고 理解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Hesse는 內面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die Stimme in sich selbst>¹⁴⁾ 라고 表出하고 있다. 즉 <自身の 속에서 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自己自身の 속>이란 內面이므로 內面은 곧 自身の 모든것이 凝結된 結晶의 精神을 말한다. 그리고 <소리>역시나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며 또한 言語의 소리로써도 그뜻은 훨씬 弱하다. Hesse로 自身の 소리를 <自身の 運命의 소리—die Stimme seines eigenen Schicksals>¹⁵⁾ 로서 補完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內面은 運命까지 포함한 것이며 소리는 人間이 神의 경지에 도달한 즉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엄숙한 覺醒의 言語로서 받아 들여야 할것이다.

1919年 1月 Hesse는 <짜라투스트라 다시 오다—Zarathustras Wiederkehr>를 썼다. 이 Essai는 副題 <독일 青年에게 주는 말—Ein Wort an die deutsche Jugend>에서 보듯이 一次大戰의 敗亡에서 패허 속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獨逸의 青年들에게 나아갈 길을 Zarathustra의 입을 빌어 呼訴하고 있다. Hesse의 그 길은 청년들에게 自身の 運命을 사랑하고 이것을 神과 같이 믿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Hesse의 內面을 시사하는 運命이 있다. <우리들의 運命을 파악하고 우리들의 고뇌를 自身の 것으로 받아 들여서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우리들의 고뇌에 依하여 成人이 되는 것이다.¹⁶⁾> 그는 人間과 運命의 關係에 대하여 <우리들의 목표는 그것이 모든 人間の 目標인 것이지만 運命과 하나가 되는 것¹⁷⁾>이라고 말한다. 그는 단호한 결론으로 <여전히 運命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受難에서 달아나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成人이 되기를 기피 한다면 沒落해 버리는게 좋겠

13) 朴鐘鴻: 知性的의 模索, S. 170. 博英社, 1972.

14) H. Hesse: Demian, Gesammelte Dichtungen, Bd. III, S. 102, Suhrkamp Verlag, 1958.

15) H. Hesse: Betrachtungen, Eigensinn, Gesammelte Dichtungen, Bd. VII. S. 98, SahrkampV Verlag, 1958.

16) H. Hesse: Zarathustras Wiederkehr, Gesamelte Dichtungen, Bd. VII S. 221.

17) Ibid. S. 213.

다.¹⁸⁾ 라고 그러면 Hesse는 運命論者로서 現實의 從者로서 만족하는 諦念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Hesse의 그런 運命이라면 그의 內面이란 一考의 價値도 없는 한갓 조개껍질과 같은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러나 Hesse의 運命은 우리들이 말하는 宿命이 아니다. 超人間에 의하여 어찌지 못하도록 生死가 支配되는 諦念的인 運命이 아니고 人間 自身이 內在하고 있는 힘, 自身 속에 감추어져 있는 超人的인 能力을 導出해 내는 意志이며 知慧인 것이다. 그 運命은 自身속에 있는 神이며 따라서 內面에의 길은 곧 內面에 있는 運命, 即 自身の 神을 發見하는 것이다. Hesse는 青年들에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神 이외에 이 세계에는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¹⁹⁾고 말한다.

—Eure Zukunft und euer schwerer, gefährlicher Weg ist dieser : reif zu werden und Gott in euch selbst zu finden. Nichts ist euch, deutsche Jünglinge, schwerer gemacht. Stets habt ihr Gott gesucht, aber niemals in euch selbst, Er ist niergends sonst, Es gibt keinen andern Gott, als der in euch ist ²⁰⁾

Hesse의 運命愛는 결국 自身の 個體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의 個體는 어떤것에 의해서도 侵害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에게 주어진 權利이고 나를 幸福하게 하는것 만이 나의 義務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絕對存在인 나를 움직이게 하는 <소리>는 절대적인 <自身の 소리>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언제나 <他人의 소리>에 의하여 支配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이 政治이기도 하고 道德이기도 하고 物質이기도 하고 戰爭이기도 한 것이다. Hesse의 內面性은 결국 自身の 속으로 들어와서 自身の 運命을 찾아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外部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어서 思惟하고 省察 함으로써 그것은 可能해 진다. 外部의 온갖 對立, 갈등을 即物的인 解決로서 對處하려고 하기 때문에 對立은 對立으로써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他人의소리>인 것이다.

小説 Demian(1919年)은 內面性을 主題로한 本格的인 小説이라 할 수 있다. 그의 序文에서 <Das Leben Jedes Menschen ist ein Weg zu sich selber hin der Versuch eines Weges> ²¹⁾란 말을 보듯이 人間의 모든 삶을 <自身에게 이르는 길>로서 명백하게 人間의 內面化를 주장하고 있다. Hesse가 보는 세계는 두 세계가 共存하고 있다. 즉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이다. 그리고 人間의 生成도 이 두 세계와 같이 善한 것과 惡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언제나 矛盾되어 共存한다. 主人公 Sinclair은 밝은 세계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집밖에 나옴으로써 어두운 세계와 關係지워지고 좀처럼 이 誘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는 苦悶을 갖게 된다. 어두운 세계 속에서 經驗하는 生의 달콤한 面을 거부하지 못하는가 하면 한편 이를 탈피 하여야 한다는 善의 소리에 마음을 괴롭혀야 한다. Hesse는 <두 세계가 그토록 가까운 이웃에 있고 그토록 가까이 맞붙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운 것>²²⁾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善의 세계와 惡의 세계는 경계가 없는 共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두 세계속을 넘나들어서 즐거워 하고 도취되었다가 다시 自我에 눈이 뜨면 흠뻑 놀라서는 괴로움에 마음을 조린다. 그는 <즐거 급지된 세계에서 살기까지 했다.>²³⁾가는 <아주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²⁴⁾이 되어 마음을 조여야 하는 것이다.

Gewiß, ich gehörte zur hellen und richtigen Welt, ich war meiner Eltern Kind, aber

18) Ibid. 221.

19) Ibid. S. 229.

20) Ibid. S. 229.

21) H. Hesse: Demian, Gesammelte Dichtungen, Bd. III. S. 102. Suhrkamp Verlag, 1958.

22) Ibid. 178.

23) Ibid. S. 128.

24) Ibid. S. 128.

wohin ich Auge und Ohr richtete, überall war das andere da, und ich lebte auch im anderen, obwohl es mir oft fremd und unheimlich war, obwohl man dort regelmäßig ein schlechtes Gewissen und Angst bekam.

Hesse의 이같은 世界의 矛盾은 바로 人間의 矛盾으로서 이 矛盾의 克服 없이는 人間도 世界도 不安과 질곡에서 구제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矛盾의 世界와 矛盾의 人間이 어찌하여 생긴 것인가? Hesse는 이를 自然의 秩序에서의 脱落과 人間의 道德的인 生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自然은 원래가 좋이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生과 滅의 秩序를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그 本質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自然의 純粹 속에 人間의 惡魔的인 暴力이 작용하여 그 秩序를 파괴한 것이다. 즉 人間은 自然 속에서 美를 탈취 하였으며 生成의 순환을 人間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自然 속의 世界는 人間의 악마적인 色相으로 바뀌어 지고 말았다.

Viele sagen, sie "lieben die Natur" Das heißt, sie sind nicht abgeneigt, je und je ihre dargebotenen Reize sich gefallen zu lassen. Sie gehen hinaus und freuen sich über die Schönheit der Erde, zertreten die Wiesen und reißen schließlich wegzuwerfen oder daheim verwelken zu sehen²⁵⁾

Hesse의 말과 같이 인간은 自然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꺾고 짓밟고 그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꺼리까지 않는 人間이기에 自然은 그 모습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矛盾의 人間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古代의 人間은 自然과 同一한 秩序 속에서 살았다. 순수하고 素朴한 그들은 人間의 本能을 神과같이 사랑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道德이란 베일이 씌워짐으로써 本能을 罪惡視하기 시작하고 神에 대한 無節制한 崇拜心を 강요함으로써 人間은 道德과 神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本來가 自然의 아들로서 本能에의 충동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清教徒的, 道德的인 얼굴과 本能的이고 自然인 얼굴로서 矛盾된 形相을 가지고 항상 그 갈등 속에서 살아 가고 이러한 人間的인 慾求不滿에 의하여 戰爭과 같은 悲劇까지도 저지르게 된다. <음악이 도덕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한다>²⁷⁾ 고 말하는 것도 결국 道德에 대한 그의 反感으로서의 고백일 것이다. Sinclair의 친구인 Pistorius는 위대한 聖者 까지도 돼지에 비유할 만큼 도덕적인 人間을 혐오하고 있다.

Ah, du bist mir ein schöner Heiliger! Du hast auch dein Laster, ich weiß es! Du tust wie ein Weiser, und heimlich hängst du am gleichen Dreck wie ich selber. Alle sind wir Schweine!²⁸⁾

이러한 矛盾의 人間과 世界를 克服하는 길은 어디에서 求하여야 하는가? Hesse는 이 問題를 內面에서 求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들이 自身을 發見하여야 하고 自身의 眞面目을 直視한 年後 超克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는 <自身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면 神靈도 발견할 수 없다>²⁹⁾ 고 말한다. 이것을 그대로 바꾸어 말하면 <自身을 발견할 수 있다면 신령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 自身에의 發見이 이루어 지는 곳이 바로 內面인 것이다. 人間의 內面속 그 깊숙한

25) Ibid. S. 104.

26) H. Hesse: Peter Cammenzind, Gesammelte Dichtungen, Bd. I. S. 207, Schrkamp Verlag, 1958.

27) Ibid. (Demian) S. 186.

28) Ibid. (Demian) S. 211.

29) Ibid. S. 192.

곳에 自身의 참이 있고 運命이 있고 극복의 知慧가 있고 가능한 힘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특징지어진 운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 속에 끝내 살려 내는 일³⁰⁾이라고 Hesse는 內面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러므로 기존의 질서나 지식이나 심지어 宗教까지도 하잘것 없는 허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宗教의 취지도 구원의 教義도 뜻째 죽어 있어 아무런 쓸모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우리들의 유일한 임무로서, 운명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각자는 아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자신 속에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胚芽를 정당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³¹⁾ 라고 內面 속의 자신을 철저히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3. 主題에서 본 <Siddhartha>의 生의 意義

Hesse文學의 두드러진 特徵이 自己發見, 自我追究를 위한 內面性의 文學임을 周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Hesse文學을 內面性이란 특징을 가지고 全作品을 評價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尺度인양 作品마다에 이 內面性의 樣相을 가지고 說明 하려고 하는 傾向을 보게 된다. 그러나 Hesse의 많은 作品을 概觀 할지라도 몇갈래의 主流的인 思想을 系列化할 수 있는가하면 또 이를 期別로서 특징 지을 수 있는 思想的인 推移를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같은 系列로 보이는 作品도 엄밀히 分析하면 作品 하나마다 특징적인 要素가 있는 것이다. 설사 한 作品을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作家의 視點과 主題性이 달라질 수도 있다.

小說<Siddhartha>는 철저히 自我를 追求한 記錄이다. 파라문의 아들로서 태어난 Siddhartha는 이미 宗教的인 修鍊으로써 自身에게 충실한 것이 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滿足하지 못했다. 眞實된 自己의 모습, 즉 <眞我—Atman>를 찾아 보려고하는 그는 實在의 懷疑를 단념하지 못한다. <이 가장 깊은 나, 終末이 있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살도 아니며 뼈도 아니며 생각도 儀式도 아니라고 賢者들은 가르쳐 주고 있다. 眞我是 어디에 있는 것일까?……파라문과 聖典에는 모든것은 알고 있고 알기 위하여 애써고 있다. 世界의 創造, 言語, 飲食物, 呼吸의 發生, 感覺의 秩序, 神들의 擧動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이 알고 있다. ……만일 사람이 가장 중요한것, 오직 하나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³²⁾ Siddhartha의 絶對的인 課題는 眞我的 發見이 오직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보아도 이 作品은 어느것보다 內面性이 充溢한 小說임을 말할것도 없다.

Siddhartha의 苦悶이 眞我的 發見에 있고 Demian의 숙제가 自我의 追求에 있는것이므로 前者를 Demian의 內面性과 同一한 觀點에서 理解하고 評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다를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判斷의 모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두 作品은 基本的인 구조가 다른 것이다. Hesse는 Demian에서 Sinclair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自身과 世界를, 周邊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事象에 떠밀려서 指向없이 방향하고 있는 世代에 대하여 自身을 의식하고 참으로 나아갈 길을 自我 속에서 구하는길, 즉 內面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Siddhartha는 근원적으로 內面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眞我的 追求는 Demian과 같은 內面에 의한 自我發見이 아니라 오히려 外部와의 體驗에서 自我의 生成을 覺醒 하려고 한것이다. Siddhartha는 어릴적에 벌써 <명상할 때 말 중의 말 음(Om)을 소리없이 말할 수 있었³³⁾ 奧義書(Upanishadd)를 읽어 <너의 정신은 전 세계다>³⁴⁾ 란 말을 이해 하였고 그러면서도 眞我를 볼 수

30) Ibid. S. 211.

31) Ibid. S. 208.

32) H. Hesse: Siddhartha, Gesammelte Dichtungen, Bd. III. S. 628. Suhrkamp Verlag, 1958.

33) Ibid. S. 627.

34) Ibid. S. 627.

없는 苦悶에 사로잡혀 있었다. 말하자면 Siddhartha는 內面 속에 잠긴 생활에서 출발한 少年이기에 Sinclair와 같은 內面性의 問題는 이미 體驗 以前의 原初的인 것이다.

小説 Siddhartha는 그러면 어떤 觀點에서 파악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Siddhartha의 印象에서 印度的인것 (파라문敎와 沙門의 苦行 그리고 小説의 背景에서), 佛敎的인것 (Siddhartha의 이름과 佛陀의 만남과 가르침)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어찌 자연스러울런지 모른다. 하지만 이 小説은 表題와 內容의 印象은 전혀 異質的인 것이다. 우선 緒言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가장 佛敎的인 것을 新敎的 立場에서 씌어진 것이라고 Hesse 自身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Daß mein <Siddhartha> nicht die Erkennt-niss, sondern die Liebe obenan stellt, daß er das Dogma ablehnt und das Erlebnis der Einheit zum Christentum, Ja als einen wahrhaft protestantischen Zug empfinden.³⁵⁾

그러면 Hesse는 무엇때문에 印度에서 作品의 題材를 선택 하였는지 그 根本的인 疑問을 가지고 이 作品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Hesse의 말처럼 新敎的인 立場이라고해서 Siddhartha에서 佛敎의 思想과 敎義를 本格的으로 批判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Siddhartha를 Hesse의 人間探求의 主題로써 살펴 봄으로써 문제의 解答을 얻어려고 한다.

Hesse의 많은 小説의 題材는 모두 西歐에서 求하고 있다. 다만 時代의 差가 있을 뿐이다. Narzis와 Goldmund는 中世이며 Cammenzind는 現代의 初期이고 Demian은 1910年代의 大戰의 前夜이며 Glasperlenspiel은 未來를 내다보고 쓴 小説이다. Hesse는 이 作品들에서 모두 特色있는 主題를 가지고 있지만 一括하여 볼 때에 內面性을 바탕으로 하여 人間의 깊은 곳을 探索하고 있다. 그러므로 Siddhartha는 Hesse의 小説의 題材面으로 보아서 두가지의 가장 두드러진 特色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印度의 精神的인 支柱라고 할 佛敎의 求道하는 姿勢이고 또 하나는 東洋의 覺醒者라고 할 Buddha의 少時적 이름을 題名으로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Hesse의 여러 小説의 題名은 대부분 Peter Cammenzind를 비롯해서 主人公의 이름이거나 Demian처럼 간접적인 主人公이긴 하지만 Siddhartha와 같이 歷史的인 人物을 직접 題名으로 하여 傳記와 같은 印象을 노골적으로 내보여 준것은 드물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Hesse는 Siddhartha에서 처음부터 求道的이고 內面的인 人間像을 示顯 하려고 하였음이 틀림없다. Hesse는 Siddhartha에서 그의 主題性을 강력하여 보여줄 計算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iddhartha에서 生의 意味를 佛敎的인 次元에서 求하여 보고 다음에 이를 生의 本能을 가진 人間的인 次元에서 否定하고 다시 本能的인 人間의 다락, 즉 肉慾과 物慾으로 轉落한 人間을 否定하는 行路를 보여주고 있다. 이 小説에서 Siddhartha는 처음부터 파라문의 至高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自我를 찾는 內面性을 보여 준다.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선망을 한몸에 지닌 少年 Siddhartha는 그러나 전혀 기쁘지 않고 총명한 눈매의 그 안에는 自我에 대한 풀 수 없는 懷疑에 잠기어 늘 우울한 것이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 고오빈다의 뜨거운 우정도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하거나 평안하게하고 흡족하게 해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³⁶⁾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날 苦行하며 巡禮하는 沙門을 보고서는 出家를 결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出家를 만류하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저 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Du wirst in den Wald gehen und ein Samana sein, Hast du Seligkeit gefunden im Walde, so komm und lehre mich Seligkeit, Findendest du Enttäuschung, dann kehre

35) H. Hesse: Mein Glaube, Gesammelte Dichtungen, Bd. VII S. 372, Suhrkamp Verlag, 1958.

36) Ibid. 628.

wieder und laß uns wieder gemeinsam den Göttern opfern》³⁷⁾

아버지는 Siddhartha에게 沙門이 되어 地上的 행복을 발견 하거던 돌아와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고 같이 神을 섬기자고 부탁 하지만 아들은 영영 돌아 오지 않았다. Hesse는 그의 作品中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至高의 것으로 崇拜하고 母性에의 憧憬을 저버린적이 없었는데 Siddhartha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言及이 없다. 다만 晩年의 Siddhartha가 江물에서 흘러간 파저를 들여다 볼적에 平生에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懷恨하는 場面이 있을 뿐이다. 이것 역시나 Siddhartha의 求道精神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人間的인 情宜를 초월하려고 한것으로 생각된다

沙門이 된 그는 친구이며 열렬한 追從者인 Govinda와 함께 苦行의 修鍊을 쌓아 간다. <그는 보름을 단식할 때도 있었>³⁸⁾으며 때로는 <가시덤불 위에 앉아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흘렀다>³⁹⁾ 이러한 苦行을 하는 그의 한가지 목적은 解脫하는 것이었다. <탐욕에서, 욕망에서, 꿈, 기쁨, 슬픔으로부터 解脫하는 것이었다.>⁴⁰⁾ Siddhartha는 解脫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Wenn alks Ich überwunden und gestorben war, wenn jede Sucht und jeder Trieb im Herzen schwieg, dann mußte das Letzte erwachen, das Innerste im Wesen das nicht mehr Ich ist, das große Geheimnis ⁴¹⁾

해탈한 마음의 思索 속에서 내가 아닌 本質的인 秘密을 깨칠려고 하였어도 Siddhartha는 <眞我>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先覺者 Godama Buddha의 소문을 들었다. (이 대목에서 Siddhartha와 Buddha는 異人임을 알게 된다) 많은 沙門의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의 祇園에 모여들고 있었다. Siddhartha도 Govinda와 함께 Buddha 앞에 나아가 說法을 들었다. 그는 四諦와 八正道를 배워 깨달음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의 疑問을 풀수가 없었다. 그는 Godama에게 나아가 <당신은 죽음에의 허탈을, 笮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 독특한 探求를 통하여, 자신의 銘想을, 參禪을, 認識을, 覺醒을 통하여 이루어 진것입니다. 결코 배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⁴²⁾ 고 말하고 Godama의 說法 가운데 단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그는 지적 한다. <수십만의 求道者 중에서 世尊 혼자 만이 體驗하신 秘密,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⁴³⁾ 말하자면 Siddhartha의 회의는 바로 이것이 었다. 覺醒은 스스로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고 배움이 아니다. Buddha에 의한 覺醒은 자신의 것이 아닌 배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自身の 覺醒을 위하여 친구 Govinda를 남겨 두고 떠나기로 하였다. (Govinda는 覺醒者가 될 수 없고 修道者는 될 수 있기에) 그는 <眞我>의 發見이 苦行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깨달은 때문이다.

俗世로 돌아 오는 그에게 世上은 모두가 달라져 보였다. 일찌기 沙門이 되어 世上을 등졌을 때는 모두가 無意味한 것이 었었다. 살아 있는것도, 태양의 빛남도, 自然의 아름다움도, 새의 지저귐도 한갓 썩은 나무토막 같이 보였으나 世上을 찾아온 그의 눈엔 이제야 아름다움과 빛으로 充滿한 것이 었다. 그는 기생인 Kamara와 사랑을 하고 商人이 되고 生을 享樂한다. 그는 人間의 世俗的인 모든것을 經驗 하면서 自我에의 意識을 잠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生活에서 얻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는 최잔해 가는 肉体와 몽롱한 精神 속에서 다시금 自我에 대한 意識으로 돌아 온것

37) Ibid. 629.

38) Ibid. 631.

39) Ibid. 631.

40) Ibid. 640.

41) Ibid. S. 626.

42) Ibid, S. 629.

43) Ibid. S. 630.

이다. 그러나 지금의 自我意識은 지난날 그가 갈망하던 眞我에의 意志가 아니다. 灰複할 수 없는 自身の 타락을 嫌惡하고 더 어쩔 수 없는 絶望과 悲難의 自我意識이었던 것이다. <이미 目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빛없는 꿈을 털어 버리고 이 김빠진 술을 토해 버리고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소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⁴⁴⁾ 라고 그는 탄식하였다. 그는 環俗할 때 希望을 안고 건넌던 그 江물에 몸을 던질려고 하였다. 이때 그의 귓가에 <Om>의 소리가 들려 왔다. 오랫동안 있고 있었던 파라문의 完成의 소리였던 것이다. Siddhartha는 이제야 自我에 이른 것이다. 그는 <悲慘과 방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自身을 認識한 것이다>⁴⁵⁾

Hesse의 自我에 이르는 길은 결국 이것이었다. 生은 주어진 것이다. 自身の 意志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生을 認識하려는 意志 即 自我의 發見이나 眞我是 苦行으로써, 快樂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生의 무한한 可能性, 즉 自我認識의 内面性과 本能的인 快樂, 이 兩極性的의 調和가 生의 課題라고 이 作品의 主題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自我認識을 위하여 Siddhartha와 같이 苦行으로 인하여 自然을 불 줄 모르고 生을 沒覺한 人間에겐 현실적으로 眞正한 自我에 이를 수 없으며 또한 生을 官能과 物質의 享樂으로 치우칠 때, 그 生은 人間의 참을 認識할 수 없고 따라서 自我란 먼 彼岸에 있게 마련인 것이다. Siddhartha가 만약 自我의 探求를 위해 沙門이 되기 前에 生의 意味를 먼저 깨우었다고 하면 그는 生과 認識의 調和된 人間으로 止揚 되었을 것이며 또한 生을 感覺적으로 體驗하였던 Siddhartha에게 自我에 대한 省察이 있었더라면 그는 放縱의 늪에서 絶望하지 않았을 것이다.

4. 結言—Hesse의 새로운 人間像

Hesse는 小説 Siddhartha에서 世界가 요망하는 理想的인 새 人間像을 그리려고 하였다. 不徳한 이 世上을 淨化하고 終末을 향해 즐달음 치는 現代를 救濟할 수 있기 위하여 人間은 새로이 탄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人間이란 生의 참다운 意味를 파악한 人間을 말하는 것이다. 주어진 生을 享受하고 人間과 世界에 대하여 참되게 作用하려는 意志를 自我에서 찾는 것이, 生의 참다운 意味가 되는 것이다. 물론 Hesse는 Siddhartha에서 새로운 人間像을 俱現해 놓은 것은 아니다. Siddhartha는 眞我的 發見에 生을 빼앗긴 얼굴과 生을 感覺으로서 체험하여 自我를 빼앗긴 얼굴이 있고, 두 얼굴이 破産하여 自然에 歸依하는 늪은 얼굴이 있다.

Hesse의 새로운 人間像은 可能性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는 現代의 文明社會를 철저히 不信하고 있지만 그의 어떤 作品에서도 한 時代나 社會全體를 本格的인 對象으로 하여 批判하거나 調刺한 글을 쓰지 않았다. Hesse는 다만 한 時代, 한 社會를 사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主人公들이 겪는 體驗, 그것도 極히 内面的인 體驗에 의하여 社會와 世界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Hesse가 理想으로 하는 社會나 世界 역시 形相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가 理想으로 하는 社會에 君臨해야 할 理想的인 새로운 人間像 역시 形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은 당연한 歸結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人間像은 Siddhartha의 얼굴이 아니다. 眞正한 自我를 發見하려고 파라문의 教義를 否定하고 父母를 떠나서 辟吐성이 되는 苦行을 감수하는 Siddhartha도 아니며 覺醒者 Buddha에게 歸依한 Govinda도 아니다. 더욱이 Kamara와 사랑을 하고 돈을 벌고 몸과 마음을 불사르고 절망하는 Siddhartha의 모습도 아니다. Hesse의 可能性은 Siddhartha 自我에 이르려는 努力에서 찾을 수 있다. 自我에 대한 執念은 그로 하여금 온갖 肉體的인 苦行을 감수케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宗教

44) Ibid. S. 648.

45) Ibid. S. 649.

的인 修練이거나 求道的인 하나의 課程으로 생각하여서는 Siddhartha는 수많은 沙門이 겪는 素朴한 體驗記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Siddhartha는 沙門의 人間的으로 超越하려는 修練에서는 人間을 發見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 生活을 清算하였던 것이다. 環欲한 Siddhartha의 生活에서도 求道的인 面을 엿볼 수 있다. 즉 Kamara와의 享樂, 商人으로서의 투기, 그 속에서 沒我的인 면모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欲人으로서의 人間的 全能한 形相을 스스로없이 연출해 보았지만 人間의 外面的인 慾求是 永遠性이 아닌 生의 有限性으로 해서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人間不在의 求道的인 生에서 自我의 發見은 한갓 虛構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人間이 自我에 대한 內面的인 省察이 없이는, 本性에 의한 慾求的인 生에서도 自我는 分裂해 버린다. 이 兩極性의 調和에서 人間은 眞正한 自我에 도달할 수 있으며 自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人間은 순수한 人間性을 가지며 人間과 世界에 참되게 作用할 수 있는 새로운 人間像이 탄생하게 된다. 小說 Siddhartha의 眞面目을 알기 위하여는 이 作品의 主題性을 무엇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可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H. Hesse: Gesammelte Dichtungen, Bd. I, III, IV, V, VII. Suhrkamp Verlag, 1958.
2. Hugo Ball: Herman Hesse, Suhrkamp Verlag, 1956.
3. W. Grenzmann: Deutsche Dichtung der Gegenwart, Frankfurt a. M. 1953.
4. H. Friedmann U. O. Mann (hrsg) Deutsche Literatur 20. Jahrhundert, Heidelberg, 1962.
5. K. A. Horst:: Die Deutsche Literatur der Gegenwart, München, 1959.
6. G. Hafner: Herman Hesse, Werke und Leben Würnberg, 1954.
7. O. Engel: Hermann Hesse, Dichtung und Gedanke, Stuttgart, 1948.
8. 許 亨根華甲紀念論叢,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7.
9. 獨逸文學, 韓國獨語獨文學會刊 15, 16輯 etc.